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에 정기 임원회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예배순서에 대한 해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기재된 실천사항을 실천합니다.

식 당 봉 사 : 찬양대
 4/1 식 당 봉 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안경아 김미혜 김윤수 민병배
 오늘설거지봉사 : 조순덕 이준하 양상철 박재란
 다음 주 설거지 : 우순덕 정재정 김정애 김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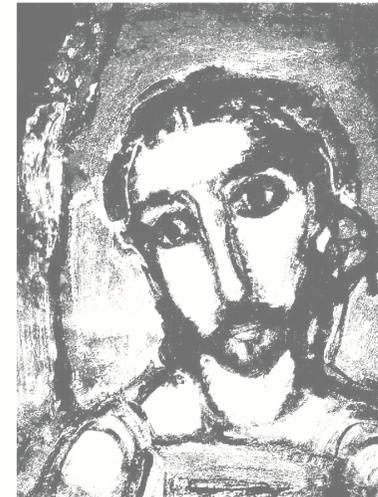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작은 부딪침에도 쉽게 깨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혀 주십시오. 일상에서 겪는 여러 충돌로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붙여주십시오. 온전함을 회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꽃샘추위 속에서도 태양이 전해주는 온기를 받아 꽃을 피우는 나무 들처럼, 모진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따스한 사랑을 받아 존재의 꽃을 피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위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멀리 내다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권순 김문주 김범진 김미현 김상근 최선미 김연실 김용진
 박효선 김운수 박상호 김종락 박영신 김종문 김종철 김고영애 김김준우
 우순덕 김혜권 박재임 문금석 박병구 김정애 박영희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손성현 안경아 오자영 윤정덕 구성실 이은자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조병억 조정연 차혜심 노미향 최재욱 이수정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LK

감사헌금:

김종락 박영신 박병구 김정애 방문성 박혜경 무명

생일감사헌금:

최윤희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미현 김준우 우순덕 박창운 허정윤 무명

장혜숙	백혜숙	정두리	장혜숙
노순옥	박성희	배부소	노순옥
최희영	최경미	이명희	이은혜
장영숙	신영신	이명경	문영혜
정경례	진정숙	정김순	김혜권
박홍재	곽권희	방크숙	백묘현
박효선	허정윤	오복순	임미심
이순정	김금순	구성실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정현주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정영희	이홍수
정영선	서정순	최희정	홍춘성
박혜경	조향미		백성래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감씨

김진광 아동문학가

감씨 속에는/ 조그만 샅이 하나/ 들어 있지

봄철 씨앗이/ 기지개를 켜고/ 세상에 나올 때

고결 들고/ 영차영차/ 흙을 파고 나오라고

하느님이/ 조그만 샅 하나/ 선물했지

봄

최윤진

문빈정사/ 섬돌 위에/ 눈빛 맑은 스님의/ 털신 한 켤레

어느 날/ 새의 깃털처럼/ 하얀 고무신으로 바뀌었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때가 어려울수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사십시오. 잠시잠깐 형통해 보이는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며 의인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평화의 날,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예배 순서에 대한 해설 인도 : 김기석 목사	나는 시편이다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하정석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권미정 집사 박규석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조문규 김금순 진정숙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박효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주님의 잣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가9:23-26)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 분노마저 느꼈던 구절이 바로 하늘나라를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비유한 마태오 복음 20장 1-16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서도 꼴찌가 첫째가 되었다 라고도 하겠으나, 그보다는 내 신앙이 신생아 수준에서 영금영금 기기 시작하는 단계로나마 성장을 한 것이라고 여기고 싶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참을 수 없는 부조리는, 결코 의롭고 높은 정신, 근면한 이, 착한 이가 잘살고 대접이나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이다. 만약 이 세상이 일한 만큼 잘살고 의로울수록 존경받는 공평한 사회라면 하느님에게 호소하여 의를 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가 천국일 테니까. 죽은 후에라도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싶은 건 바로 이 세상의 불공평 때문이었다.

나는 심판의 날에 과연 몇몇할까. 그다지 자신이 없으면서도 나보다 더 나쁜 악인이 더 가혹한 심판으로 고통 받는 꼴을 보기 위해서라도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우리의 절망은 거의 체질적이다.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공평을 바랄 때, 온종일 일한 일꾼에게나 반나절 일한 일꾼에게나 오후 늦게부터 일한 일꾼에게나 똑같은 임금을 주는 처사는 실망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정실 인사하고도 비슷하거니와 게으른 자의 요행수를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불공평을 하늘나라에 비유하시다니, 하

늘나라에 들 수 있는 조건을 엄혹하게 붙이기로 소문난 예수님께서 어쩔 이렇게 허술한 비유를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슴에 와 닿곤 한다.

포도원 일꾼이라면 물론 말밭이나 글밭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식인은 아니었을 테고, 요즘의 기능직하고도 달라 다만 몸 힘 하나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노동꾼이었을 것이다. 한 데나리온은 새벽부터 일어난 근면한 일꾼과 인색하지 않은 주인이 합의한 액수니까 식구들과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만한 가치는 되었을 테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생각해두 무방할 것 같다.

문제는 그 임금을 온종일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나와서 조금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한 데 있다. 포도원 주인도 늦게 나온 사람을 처음부터 탐탁하게 여긴 것은 아니다. 왜 하루 종일 빈둥거렸냐고 물었고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안 주었다고 말한다. 왜 그들은 온종일 일을 못 얻었을까. 아마 옷차림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고 몸이 남보다 작거나 약해 보였을 수도 있으리라. 아무튼 남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서 주인 눈에 뵈지 못하면 영악하고 뽕방뽕방한 사람은 못 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일꾼의 비실비실하면서도 초조한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연민의 시선과의 만남은 슬프고도 아름답다. 예수님은 그 꼴찌 인생들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자연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바람을 내리듯이, 그것이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공평 이상의 가치인 것이다.